

〈일반논문〉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체코군단

황정식*

〈목차〉

- I. 서론
- II.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체코군단
- III. 독립군과 체코군단의 무기 거래
- IV. 맺는말

[국문초록]

1948년 공산화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체코 군단이 1918년 체코 건국에 별다른 기여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정의롭지 못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즉 그들은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 전쟁에 참전했고, 특히 신생 소비에트 정부의 목을 조인 반동적인 존재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코군단에 대한 언급이나 연구는 1989년까지는 거의 금기시 되었다. 1989년 이후 새로운 시각으로 군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자료의 접근, 수집 정리의 어려움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으로 국내의 체코군단이나 군단과 독립군과의 관계 등에 관한 연구 역시 단편적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체코군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지금까지의 독립군과 무기거래라는 일회적, 제한적인 문제 영역을 벗어나 1920년대를 전 후한 동북아의 정세를 이해하는 데에

* 국제역사교과서연구소 연구교수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체코군단의 시베리아 철도를 통한 이동은 고대 그리스의 *Anabasis*에 비교되는 역사적 사건의 한 특이한 형태로서 그 자체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흥미 있는 연구 주제이다. 체코군단과 관련된 국내외의 다양한 사료들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할 경우 1920년을 전 후한 연해주와 만주, 그리고 간도 지역의 독립운동사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가이다의 열차 등 체코군단에 합류하고 있던 한인들의 존재와 독립군과의 관계를 추적해 보는 작업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체코군단이 이동 중에 발간했던 *Czechoslovak Dennik*는 중앙아시아와 연해주 등지에서 활동했던 무명의 다양한 한인들의 행적을 밝혀 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미 밝혔듯이 독립군들이 총포와 탄약, 그리고 수류탄 등 체코군단으로부터 구입한 무기는 체코제가 아닌 다양한 출처의 “체코군단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였다. 또한 군단이 독립군에게 무기를 판매한 것도 그들이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고 독립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해서가 아닌 단순한 무기 처분 과정 이었다. 체코군단의 무기를 구입한 사람들은 독립군 외에도 중국인과 러시아인 등 다양한 민족과 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기 판매 행위도 군단의 공식적인 승인 하에서가 아닌 소수 군단병들의 일탈된 행위였다.

가이다 장군의 여운형 등에 대한 환대와 한국독립에 대한 지지 표명, 그리고 귀국 후에도 필설로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겠다고 했던 약속 등의 진정성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부관 한츠를 대동시킨 열차로 귀로의 여운형을 호위해 주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지만 밝혀진 바 귀국 후의 가이다의 행적에서 우리가 크게 주목 할 만 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의 진정성을 믿기는 어렵다. 추측건대 독립군으로 넘어간 무기 중 일부는 가이다가 지휘하던 부대의 무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시정부의 가이다 장군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파리 평화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해줄 나라는 없었다. 모두가 한국인의 적인 일본의 우군들이었다. 그런데 유럽의 신생 체코 공화국의 유력자로 보이는 가이다가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을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임정 요원들에게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임시정부가 체코 독립기념 은컵을 제작하여 가이다에게 선물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였다. 체코슬로바키아나 가이다에 대한

박은식 선생의 기대와 평가도 그야말로 선생의 기대와 희망이었을 뿐이다.

□ 주제어

체코군단, 독립군, 임시정부, 체코군단의 무기, 시베리아 철도, 은컵, 북로군정서, 러시아 내전, 소비에트, 붉은 군대, 백군, 국제혼성군, 국제 간섭군, 파리평화회의, 빨치산, 독립신문

I. 서론

체코 군단이라는 이름은 청산리 전투에 사용되었던 독립군의 무기가 체코군단으로부터 구입된 것이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체코군단,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체코 군단은 제1차 대전 중에 우크라이나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체코 및 슬로바키아인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제1차 대전이 발발하자 러시아의 체코 및 슬로바키아인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미묘한 입장이 되었다. 자신들의 모국이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와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결국 군단의 결성과 참전은 러시아에 대한 충성과 모국의 독립이라는 두 목적에 부합되는 선택이었다. 이들은 러시아군의 지휘 아래 동부전선에서 활약하였는데 체코와 슬로바키아 출신 전쟁 포로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군단의 실체가 대내외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17년 Zborov 전투였고,¹⁾ 이후 군단은 러시아 당국의 공식적인 승인 아래 활동을 계속하였다. 1918년 2월 이후 프랑스 체코군단에 편

입된 러시아 체코군단은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이후 연합군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서부 전선으로의 이동 배치가 결정되었으나 동부전선 혹은 북해나 흑해 등을 통한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유럽으로 귀환하는 경로를 택하였다. 이러한 오딧세이의 배후에는 독일 군부의 은밀한 공작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내전 기간의 러시아 지역에는 소비에트 붉은 군대와 다양한 형태의 백군, 그리고 체코군단, 다양한 국적의 친 소비에트적인 국제 혼성군(international division)과 반 소비에트적인 국제 간섭군(interventionists)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잘 훈련되고, 무장되고 통제된 군대는 체코군단이었다. 러시아 혁명이 발발했을 때 T. Masaryk은 군단이 내전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하고 중립을 선언하였다.²⁾ 체코군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 볼셰비키 투쟁을 감행했었다라면 소비에트 정권의 붕괴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에도 어느 정도의 근거는 있다고 사료된다.

한-체코 간의 관계사를 체코군단 문제와 연결시켜 체코군단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환기시켜 준 사람은 전 주한 체코 대사였던 Jaroslav Olsa, Jr.였다. 역사학을 전공했던 그는 주한국대사로 부임하면서 두 민족 간의 역사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찾아냈는데, 그중에는 군단이 발간한 신문인 *Czechoslovak Dennik*에 실린 3.1운동에 관한 기사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대사 재임 동안 *Korea Times*와의 인터뷰, 강연회, 투고 등을 통하여 누차 이를 강조한 바 있다. 올사는 1919년 초의 여운형과 R. Gajda(1892-1948)의 만남, 그리고 가이다의 부관 J. Hanc의 역할 등을 소개

1) Dalibor Vacha, "Tepluskas and Eshelons, Czechoslovak Legionaries on their Journey across Russia", *Czech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1, 2013, p. 25.

2) Albert N. Valiakhmetov, "Perception of Czechoslovak Corps by Warring Parties in Volga Region in 1918", in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Vol.8, No.7, 2015, p. 94.

하면서 이 만남의 배후에는 윌슨 대통령의 측근이자 마사리크의 지인이었던 Crane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였다.³⁾

특히 을사 대사는, 체코인 외교가이면서 동시에 저명한 여행 전문가로서 1920년대에 한국을 방문했던 Jiri Victor Danes를 소개한 짧은 논문을 쓰기도 했다.⁴⁾ 그는 부산에서 서울을 거쳐 중국으로 건너가는 여행을 하였고 그 여행기를 남겼다.⁵⁾ 을사는 Danes가 일본의 지배 하에 있는 조선의 형편을 체코인들에게 알린 최초의 인물이었다고 소개하였다.

체코인으로서 체코군단과 독립군과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이는 Zdenka Klöslova이다. 본 논문의 많은 부분도 체코어로 된 원 사료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소개한 이 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의존하고 있다.⁶⁾

체코군단에 관한 연구는 체코에서 최근까지 금기로 여겨져 왔다. 체코 당국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해답이 없으나 당대에 군단의 실체나 귀환 과정을 거론하기에는 다소 꺾끄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공산화 이후에는

3) *The Korea Times*, 2009-03-11.

4) Jaroslav Olsa, Jr., "Jiri Viktor Danes : Czechoslovak Geographer and Diplomat in Colonized Korea",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Transaction*, Vol.85, 2010. Danes 이전에도 한국을 방문했던 체코인 여행자가 두 명이나 더 있었으니 그는 한국을 방문한 3번째 체코인이었다.

5) Jiri Viktor Danes, *Three Years at the Pacific Ocean*, 1926.

6) Zdenka Klöslova, "A Story of (not only) a Silver Vase", *Dejiny a somcasnost* 16/6, 1997, pp. 17-20. "Two Czechs in Korean History : Radola Gajda and Josef Hanc", in *Novy Orient* 55/6, 2000, pp. 216-222. "Koreans and Czech Arms", in *Novy Orient* 55/8, 2000. "Czech Arms for Korean Independence Fightings" in *Archiv orientalni, Quarterly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2003. "The Czechoslovak Legion in Russia and Korean Independences Movement(A Contribution to the Earliest Czech-Korean Contacts)" in *Archiv orientalni*, 2002, pp. 195-220.

체코군단이 소비에트 정부에 대항하였던 사실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군단의 실체와 평가에 대한 논의도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대표적인 논쟁 중의 하나가 러시아 황실의 금괴 문제다.⁷⁾ 체코군단병들은 귀국 후 체코의 정치 군사 등의 방면에서 다대한 역할을 했고, 가져온 재원을 바탕으로 은행(Legion Bank)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체코 군단에 대한 나름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필자는 많은 의문, 혹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체코군단이 우리에게 무기를 판매한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배려를 한 것인가? 아니면 귀국과정에 이젠 불필요하고 짐이 되는 무기를 단순히 처분한 것으로 그 매매 대상은 전혀 문제가 안되었던 것인가? 가이다 등 체코 군단이 독립군의 활동을 격려하고 여운형 등에게 호의를 베푼 것의 진정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특히 여운형의 귀로에 부관 한츠를 동승시킨 열차를 내어 주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귀국 후 가이다의 활동 가운데 그 회상록에서 지나가듯 언급한 문구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가? 등이다.

II.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체코군단

1. 재러 한인 사회와 체코군단

한국과 체코 두 민족이 처음으로 조우하게 되는 것은 1918년을 전 후한 러시아의 동부지역에서였다. 초기 결성 단계에 있던 체코군단은 우크

7) Radio Praha, 18-08-2010, "The Czechoslovak Legions : Myth, Reality, Gold and Glory".

라이나를 중심한 그들의 활동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했었고, 이곳 거주 한인 단체들은 독립운동과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세계 특히 유럽지역 국가들에게 알리는 데에 체코인들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강대국에 의한 피압박 민족으로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꿈은 양 민족 모두에게 절실한 과제로 일종의 동병상련적 관심 속에서 관계가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었다.

1918년 무렵 러시아 유럽지역에는 약 20,000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동년 가을 Petrograd에서 국민회의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가 재러 체코국민회의 간부에게 한국의 독립을 연합국에게 중재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짧은 언급이 체코 국민회의의 주요 멤버 중 하나였던 F. Richter의 메모에 남아 있다.⁸⁾ 그러나 이 문건을 전한이가 누구였는지, 그 자세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고, 이 문건의 향후 행방에 대하여도 알려진 바가 없다. 체코 공식 문서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이 최초로 등장하는 곳은 1920년 5월 20일의 의료지원 및 감독에 관한 전쟁국의 포고령에서 이다.⁹⁾

1918년 봄 이후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한 연해주 지역은 군사 정치적으로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1918년 2월 우크라이나를 출발한 체코군단은 러시아 당국의 무장해제 요구를 거부한 채 3갈래로 나뉘어 동진을 계속했는데 그 제 1진 15,000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입성하게 되는 것은 1918년 4월이었다.¹⁰⁾

8) F. Richter, *Under the Flags of the Legion*, Praha, 1920. Zdenka Klöslova, "The Czechoslovak Legion in Russia and Korean Independences Movement(A Contribution to the Earliest Czech-Korean Contacts)" in *Archiv orientální*, 2002, p. 209. 재인용. *이하 Z. Klöslova, "Czechoslovak Legion"으로 표기.

9) Z. Klöslova, "Czechoslovak Legion" p. 210.

10) Z. Klöslova, "Czechoslovak Legion", p. 195.

한편 소비에트 정권을 제압하고, 러시아에 반공적인 민주적 정부를 구축하고자 했던 연합국들은 소위 간섭군을 파견하기 시작하여 1918년 4-6월 기간에 50,000여 일본군이 출병하였고, 이어 영국군도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던 한인은 당시 약 190,000명으로서 일부 지적이 고 부유한 계층 출신의 정치적 망명가 외에 철도와 부두 노동에 종사하던 근로 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917년 2월 혁명이 발발하자 재러 한인회중앙위원회는 혁명을 비난하고 반 소비에트적 임시정부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10월 혁명 이후 극동지역에 소비에트 정권이 구축되자 이번에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다가 1918년 6월 이후에는 체코군단의 블라디보스토크 장악과 소비에트 정권 전복을 계기로 비 소비에트적 시베리아 지역 두마로 경도하였다. 군단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에서 있던 국민의회는¹¹⁾ 체코군단이 공산당을 괴멸시키자 환영 파티를 열었다. 그러나 여기에 누가 참석했으며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다.¹²⁾

한편 1918년 2월에 창당된 한인사회당은 1918년 3월 연맹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그들은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체코군단을 포함한 연합국 등과의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결국 한인들과 체코군단이 서로 싸우는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한인 집단의 참전에 대한 자세

11) 친 소비에트 작가로 알려진 Gozenskij는 한인 중앙회가 체코의 국민의회를 모방하여 그 명칭을 대한 국민의회로 바꾸었다고 쓰고 있다. I. Gozenskij, *Participation of Korean Emigration in the Revolutionary Movement In the Far East*, Moskova, 1923. p. 368. Z. Klöslova, "Czechoslovak Legion" p. 203에서 재인용.

12) I. Gozenskij, *Participation of Korean Emigration in the Revolutionary Movement In the Far East*, Z. Klöslova, "Czechoslovak Legion" p. 203에서 재인용.

한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한 소비에트 측 사료는 “내전 기간 동안 러시아 극동지역에 거주하던 대다수의 한인 대표들이 능동적으로 간섭군 및 백색 군대와와의 전투에 참전하였고, 그들의 참전은 매우 높이 평가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¹³⁾ 이 기간에 전개되었던 Ussurysk 전투 등에 관한 체코 측의 기록에는 그들이 한인들과 싸웠다는 언급은 없는데 이는 아마 한인들의 참전자 수가 소수 집단에 불과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서 체코군단과 한인 무장 단체들이 함께 반 소비에트적인 간섭군들과 싸웠다는 기록도 있다. 러시아 동부지역에서 활동한 제222국제연대의 전투 기록에는 체코인 병사와 더불어 김 무, 이 찬신, 해운길, 이신우, 고헌센, 고헌 등 한인 대원들의 이름이 다수 거명되고 있다.¹⁴⁾

소비에트 정부를 지원하고 간섭군과 투쟁한 국제군은 러시아 내전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로 결성되어 활동하였는데 1920년에 나온 *Czechoslovak Dennik*에는 체코인과 한국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고 있다.

“그 국제군 부대의 결성을 주도한 것은 폴란드 공산당원들이었다. 거기에는 독일인, 체코인, 헝가리인, 폴란드인, 한국인과 무슬림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부대원은 1,500명에 이르고 있었고, 두 개의 부대로 편성되었다. 서부군은 체코와 폴란드인 등으로 구성되었고, 동부군은 중국인, 한국인등으로 구성되었다. 서부군은 Omsk를 거쳐 Moscow 로 파견되었고, 동부군은 당분간 여기에 주둔하였다. 동, 서군의 각 부대원들은 각기 자신들의 문자로 주보를 발행

13) F. I. Sabina, A Survey of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1918-1945, Moskova, 1959, p. 48. Z. Klöslova, “Czechoslovak Legion” p. 204.에서 재인용.

14) Z. Klöslova, “Czechoslovak Legion”, p. 205.

하였다. 한국인 부대원들은 <붉은 깃발>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있다.”¹⁵⁾

2.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체코군단

1) 여운형과 가이다

신한 청년단의 여운형 등은 1919년 파리 평화회의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여건이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 일본과 만주, 노령지역에 대표를 파견하여 이 문제를 알리고 지금이 독립운동에 절호의 기회임을 알리는 동시에 파리에 보낼 자금을 모금해 오도록 하였다. 여운형이 상해를 출발한 것은 1919년 1월 20일이었고, 2주간 여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면서 각계의 독립운동가들과 접촉하였는데 체코군단의 가이다 장군을 만나게 된 것도 이때였다.¹⁶⁾

여운형이 가이다를¹⁷⁾ 만난 것이 당초부터 여행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상해에서부터 소문은 들었지만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가이다에 대한 명성과 영향력을 세삼 감지한 그가 현지에서 바로 결정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분명치 않다. 올사는 이 만남의 배후에 월슨의 참모였던, 그리고 마사리크와도 가까운 인사였던 Crane의 중재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⁸⁾

15) *Czechoslovak Dennik*, 1920, No.78. Z. Klöšlova, “Czechoslovak Legion”, p. 205에서 재인용.

16) 신용하, 『한국근대민족운동사연구(개정증보판)』, 일조각, 2017, 250쪽.

17) 1917년 장교로서 군단에 가입한 이후 Zborov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1918년 5월 이후 볼셰비키의 무장해제 요구에 저항하는 중심인물로 부각되었다. 1918년 7월 옴스크에서 이르크츠크에 이르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지배하였고, 바이칼 전투 후 중국에 도착하여 1918년 8월 블라디보스토크의 선발대와 합류하였다. 1918년, 26세의 나이로 시베리아 지역의 주요 장군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귀국 후 파시스트로 활동(National Fascist Community).

18) *The Korea Times*, 2009-03-11

1918년 11월, 여운형은 월슨의 특사로 극동에 왔던 크레인을 만나 피압박 민족인 우리도 민족해방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를 파리에 파견하여 조선의 사정을 호소하여 각국의 동정과 협조를 얻고자 하는데 대표 파견에 문제가 없는가를 물었고, 크레인은 자기 자신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원조할 터이니 대표를 파견해 보라고 하였다.¹⁹⁾ 여운형은 크레인의 반응에 고무되어 장덕수 등과 논의하여 파리평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것과 또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하여 문서로서 조선의 사정을 평화회의에 보고하여 도움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해서 여운형 등이 작성한 “독립에 관한 청원서”가 크레인을 통하여 월슨에게 전달되기도 하였다.²⁰⁾

여운형이 가이다를 만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하나 가이다가 여운형을 만나게 되는 동기나 목적은 불분명하다. 가이다 역시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을 통하거나 당시의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한국의 상황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적 상황과 군단과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이후 일본의 협력 하에 귀국해야 할 형편에 있던 군단의 주요 인사가 항일 독립군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다.²¹⁾ 가이다 개인의 야망과 과시적 성격으로 볼 수도 있고, 독립 국가를 추구하는 같은 처지의 약소민족으로서의 동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문제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당시 청년단의 재정 상황과는 괴리가 있지만 이미 이 때부터 무기 거래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을 해볼 수도 있다. 여운형의 귀로 길을 가이다가 그의 부관 한츠를 대동시킨 열차를 통해 호위해 주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9) 신용하, 『한국근대민족운동사연구(개정증보판)』, 236쪽.

20) 신용하, 『한국근대민족운동사연구(개정증보판)』, 237쪽 ; 이기형, 『여운형평전』, 실천문화사, 2004, 81~83쪽.

21) 군단은 블라디보스톡에 머무는 동안에도 일본으로부터 여러 편의를 제공받고 있었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었던 두 사람은²²⁾ 만나자 마자 의기투합하여 많은 대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대답에서 여운형은 한국의 독립에 대한 체코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두 사람의 공동관심사인 약소민족의 해방운동에 대한 상호 간의 입장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²³⁾

2) 가이다 장군의 반 Kolchak 쿠데타와 한창걸

1919년 11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회혁명당(SR)이 주도하는 반 콜차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가이다도 이 쿠데타에 개입하였다. 그런데 가이다를 도와 쿠데타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는 다수의 한인 빨치산들과 가이다 열차의 기관총 분대장이었던 한창걸을 비롯한 16여 명의 한국인 빨치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한인 출신 빨치산들이 항일 독립군과의 연결 여부에 대하여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 전투가 외형적으로는 이념적인 측면과 항일전투라는 점 외에도 이들의 무기에 대한 욕구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으리라 추측된다.²⁴⁾ 실제로 이성(1898-1973), 혹은 홍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던 한 참가자가 쓴 회상록에²⁵⁾ 의하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참여하게 된 주된 동기는 가이다의 무기 양도에 대한 약속이었다고 하였다.²⁶⁾ 그러나 실패로 끝난 반란의 대가는 혹독한 것이었

22) 당시 여운형이 33세, 가이다는 28세였다.

23) 이만규, 『여운형선생투쟁사』, 민주문화사, 1947. 25~26쪽 ; 강덕상 저·김광열 역, 『여운형 평전』 1, 역사비평사, 2007, 187쪽.

24) 쿠데타 진압에는 일본군이 개입하고 있었다.

25) 홍파, <과거 50년을 돌아보면>, in *News on Korean Studies in Kazakhstan and Central Aisa*, No.4, Almaty, 1993, p. 66. Z. Klöslova, "Czechoslovak Legion" pp. 213-214에서 재인용

26) Z. Klöslova, "한국역사 속의 두체코인 : R.가이다와 J. 한츠", <체코 프라하 한인 소식지 나눔터> 제13호(2001.4), p. 7.

다.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진압과정에서 사살되었고, 한창걸은²⁷⁾ 콜차크 정보기관에 의해 체포된 후 일본군에게 넘겨졌고, 잔인한 고문을 당하였다.²⁸⁾

General Rosanov의 정부군에게 체포된 가이다는 3일 안에 러시아를 영구히 떠난다는 굴욕적인 약속을 하였고, 1919년 11월 27일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났다.

3) 가이다의 상해 방문과 독립신문 인터뷰

전술한 바처럼 귀국 길의 가이다는 사실상 모든 이전의 입지를 상실한 상태였고, 신생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상해에 온 가이다를 임시정부 요인들은 매우 성심으로 영접하고 환대하였다. 임정 요원들이 가이다가 처한 입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와 신생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기대는 변하지 않은 듯하다. 사실 파리평화회의를 통해 한국이 처한 입장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임정 요인들의 기대가 처절하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상대를 만난다는 것은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기회였을 것이다.

상해에서 그를 환영한 것은 한국인들뿐만이 아니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도 그의 행보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 러시아의 한 언론은 가이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다.

27) 한창걸은 연해주 Nikolsk Ussurjsk에서 출생. 전쟁에 동원된 후 대 독일 전선에 참전하였고, 1918년 전역 후에는 연해주로 귀향하여 볼셰비키에 동조하여 1919년에는 게릴라부대를 창설하였다. M. T. Kim, *Korean Internationalists Fighting for the Soviet Reign in the Far East(1918-1922)*, Moskova, 1979, pp. 77-80. Z. Klöslova, "Czechoslovak Legion" p. 213에서 재인용.

28) Z. Klöslova, "Czechoslovak Legion" p. 214.

“교양 없고... 자만심으로 생각 없이 몇천 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간 살인 용병... 군법회의에 의해 쫓겨난 장교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왔다. 탈영병과 배반자들을 그의 기차에 숨겨주었다.”²⁹⁾

상해에 머무는 동안 가이다는 임시정부의 요인들과 몇 차례의 만남을 가졌고, 이광수로 추정되는 <독립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이 인터뷰의 내용이 <독립신문> 제37호(1920.1.13.)에 게재되었다.

“시베리아의 용사로 체코국 건국 원훈(元勳)으로 이름을 세계에 떨친 가이다 장군이 해삼위 혁명사건으로 실각하여 횡포한 콜차크 제독에게 원한과 증오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탄생한 조국의 품으로 가던 길에 상하이에 들러 수십 일간 아스터 여관에 체재하다가 일전 출발 귀국의 길에 올랐다. 기자는 작년 12월 중순에 가이다 장군이 상해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곧 서신을 보내 면회를 청하였더니 2일 후에 호의로서 승낙하는 회신이 왔다.

약속한 날에 장군을 여관으로 방문한 즉 용모 준수한 한 청년 장군이 미소로서 기자의 손을 잡으니 실로 일면여구(一面如舊)라. 들은 즉 장군은 지금 28세의 청년이라. 육군 소위로 출정하였다가 1918년에 시베리아군의 사령관이 되고 이로 인하여 다시 탄생한 조국 체코민국의 육군총장이 되었다. 추운 날씨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가 오간 뒤에 장군은 극히 성의 있는 태도로 아래와 같은 담화를 우리나라에 보냈다.

‘아아 나의 조국도 수백 년 노예의 치욕을 당하다가 지금 부활하였소. 작년 3월에 귀국이 독립을 선언하고 역사에 유례를 볼 수 없는 용기와 애국심을 발휘한 것을 볼 때 세계가 다 놀라고 칭찬하였지만 그중에 가장 기쁜 감동을 받은 것은 아마 우리(체코) 국민이었을 것이요. 그때로부터 나는 귀국 독립운동

29) Z. Klöslova, “한국역사 속의 두체코인”, <나눔터> 제14호(2001.5).

의 진행을 동정과 기도로써 주목하였더니 오늘 여기서 한국인을 만나 어찌 반가운지 모르겠소.’

‘나는 귀국의 전도(前途)를 혁혁한 희망으로 보오. 지금은 비록 일본이 압박할지나 세계의 대세는 이미 일본의 군국주의를 용납할 시기가 지났소. 그러니까 귀국민이 통일과 인내와 용전(勇戰)으로 나아가면 독립을 완성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이오.’

‘나는 가장 친하여야 할 우국의 일인으로 귀 국민에게 고하려 하오. 그것은 안으로 굳게 단속하고 밖으로 힘 있게 선전(宣傳)하여 용장(勇壯)한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라 함이오.’

장군은 그 청량한 음성으로 한 시간 이상이나 담화를 계속하였는데 그 중에는 발표하기 어려운 구절도 있지만 최후로

‘나는 구라파에 가서 필로서 설로서 귀국의 독립운동을 선전하겠소. 같이 부활하는 국민의 청의(請誼)로서 인도와 자유를 위하여 인류의 의무로. 원컨대 나를 귀국의 동지로 알아주시오. 내 호의를 귀 동지들에게 전하여 주시오’ 하고 다시 만날 때는 피차에 영광 있는 독립국민으로 만나기를 약속하고 길게 악수하였다.

익일에 안창호와 장군과의 긴 시간의 담화가 있었고, 여운형씨와도 양차 회견하여 간담이 있었다.

출발 시에 부두에서 여운형씨가 온 것을 보고 통역을 대동하고 배에서 내려와 ‘성탄절에 주신 선물은 영원히 기념하고 나의 국민들에게 자랑 하겠소.’ 하며 다시금 우리의 끝까지 건국하기와 자기는 우리의 동지로 구주에서 힘을 것을 약속하였다.”³⁰⁾

이 인터뷰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한 시간 이상이나 담화를 계속

30) <독립신문> 제37호, 1920.1.13.

하였는데 그중에는 발표하기 어려운 구절도 있지만”이라는 구절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이런 저런 추측만 해볼 뿐이나 많은 궁금증을 낳게 한다.

가이다가 상해에 머무는 동안 여운형은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축하 은컵을 제작하여 선물로 주었다. 전술한 독립신문 인터뷰 기사 말미에 가이다가 “성탄절에 주신 선물은 영원히 기념하고 나의 국민들에게 자랑하겠소.”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은컵을 두고 한 말로 보인다. 전후 맥락으로 보면 임시정부 요인들은 가이다를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의 대표로서 예우한 것이었다. 한편 은컵에 대하여 체코 정부 관료는 가이다의 상해 체류에 대해 보고하면서 “가이다는 한국인들로부터 은컵을 선물로 받았다”라고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³¹⁾

가이다는 귀국 후 1927년 7월에 “가이다 장군의 해외 체류 기념물 및 자료 전시회”를 열었다. 중국, 일본, 부라야트(몽골) 등에 관한 229점의 전시물 중 이 은컵은 아이템 번호 165번으로서 소개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잘못된 설명이 붙어 있었다.

“1919년 성탄절에 한국임시정부가 가이다 장군에게 준 선물. 이 정부는 일본에 대항하는 정부로서 가이다 장군에 의하여 성립되었다.”³²⁾

상해를 떠나면서 가이다는 귀국 후 한국의 독립을 위해 필설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한 가이다가 1920년 <나의 기억들>이라는 제목의

31) *A visit of general Gajda in Shanghai*. Archives of Military History, Praha, p. 2. Z. Klöslova, “Czechoslvak Legion” p. 217에서 재인용.

32) *A Catalog of the Exhibition of Relics and Documents on General Gajda's Resistance Abroad, July 1927*. Z. Klöslova, “Czechoslvak Legion”, p. 217에서 재인용.

책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에서 그는 한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체코군단은 극동에서 두 그룹 즉 중국과 한국이라는 열광적인 추종 세력을 갖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공감을 갖게 된 주 이유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일본의 음모를 물리쳤는지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중국인이나 한국인은 모두가 극도로 일본을 싫어했다... 중국은 일본이 자기네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들의 국가가 온전히 일본의 지배를 받으며, 그들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유린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³³⁾

블라디보스토크의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가이다 외에도 체코군단의 다른 지도자들과의 접촉도 시도하였다. 체코군단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성립되자 1918년 2월에 체코슬로바키아군으로 개편되었는데 1919년 4월 13일자 *Czechoslovak Dennik*은 “한국국민회의가 본국에 전달해 달라며 한국의 독립선언서를 체코정치위원인 Girsra에게 보내왔다.”고 보도하였다. 우리는 아직까지 어떤 단체가 이 글을 보냈으며 그 문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데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³⁴⁾

군단의 활동과 존재 그 자체, 그리고 서부전선으로의 이동 등의 문제는 당시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었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재건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단의 문제는 초대 대통령이 되는 마사리크에게도 주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체코군단의 첫 선발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기 전인 1918년 4월, 마사리크는 군단의 무사 귀환을 보장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후 블라디보스토크와 일본을 경

33) R. Gajda, *My Memoirs*, Praha, 1920, p. 163. Z. Klöslova, “Czechoslovak Legion”. p. 218에서 재인용.

34) Z. Klöslova, “Czechoslovak Legion”, pp. 212-213.

유하여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는 당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편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가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의 장애 요소가 있어서 만주 철도를 이용하여 한반도를 경유하여 부산에서 일본으로 갔다. 이 때 마사 리크는 Thomas G. Marsden이라는 가명을 썼다.³⁵⁾

한편 박은식 선생은 그의 <한국 독립운동지혈사>에서 일본인의 야만적 행위에 대한 비난과 우리 독립지사들의 세계 각 방면에서의 호소로 세계 각국이 우리의 독립에 동의 혹은 협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체코의 용장 카르타가 한국을 위하여 선전하다”라는 제하에 가이다의 한국 지지를 소개하고 있다.

“체코의 카르다 장군은³⁶⁾ 1918년 시베리아 사령관이며, 체코의 육군총장이기도 한데 나이는 28세 였다. 시베리아 혁명운동으로 불리해지자 그 직을 물러났다. 그가 상해를 거쳐 본국으로 돌아 갈 때 상해에서 수십 일 머무르면서, 우리나라의 안창호, 여운형, 이광수 등에 대해 극히 동정을 표하며 말하였다.

‘저의 조국은 수백 년 동안 노예의 치욕을 입다가 오늘에야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귀국이 독립선언은 역사상 보기 드물게 보는 애국심과 용기입니다. 세계 각국은 모두들 대단히 경탄하고 칭찬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체코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감동하였습니다. 저는 깊이 귀국의 앞날이 크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은 일본의 압박 밑에 있으나, 세계 대세는 이미 일본의 군국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귀 국민이 어쨌든 통일, 인내, 용전(勇戰)의 세 가지로 진행하노라면 독립 완성의 날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가장 친한 우방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귀 국민들이 안으로 결속을 공고히 하고, 밖으로 선전에 힘쓰면서 마지막 용감한 일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35) T. G. Masaryk, *The World Revolution*, p. 239. Z. Klöslova, “Czechoslovak Legion”. p. 220에서 재인용.

36) 카르다는 가이다에 대한 오해 혹은 오기로 보임.

제가 구주로 돌아가는 날에는 마땅히 필설로 귀국의 독립운동을 선전할 것이며, 같은 부활의 국민으로 인도와 자유의 의무를 위하여 행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귀 국민이 저를 동지로 여기시고 함께 피차가 독립 국민의 영광을 누립시다.’³⁷⁾

3. *Czechoslovak Dennik* 의 한국 3.1운동 보도

군단이 열차 이동 중 발행한 신문에는 한국의 3.1운동에 관한 기사가 3차에 걸쳐 게재되고 있다. 1차 보도는 1919년 3월 18일 자로 노보니콜라예브스크에서 인쇄된 것으로 3월 6일 자 “서울의 봉기”라는 제목의 로이터 통신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한국인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한국의 독립을 요구했다고 서울 발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시위 군중은 황제의 시신이 안치된 왕궁까지 행진 하였다. 서울 거리는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혼잡했다. 경찰과 군은 봉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³⁸⁾

이 신문이 두 번째로 한국의 독립운동 상황을 보도한 것은 첫 보도 이후 열흘 뒤였는데 첫 기사와 마찬가지로 로이터 통신의 기사(3월 22일자)를 인용한 것이었다.

“일본의 조선 총독은 ‘한국은 일본 통치 아래에 남을 것이며 한국의 국민은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 총독은 ‘역사가 보여주듯 한국은 인접한

37) 박은식·남만성 역, 『한국독립운동지혈사』(하), 서문당, 1999, 109~110쪽.

38) *Czechoslovak Dennik*(제331호), 1919.3.18. <주간조선>(2094), 2010.3.1.에서 재인용.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하며 한국은 일본의 영향력 속에서 큰 성공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감옥에 수감된 1000명의 한국인 중에서 600명 이상이 석방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³⁹⁾

세 번째 보도는 두 번째 보도 46만인 5월 13일에 나왔다.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발행지는 이르쿠츠크였고 4월 7일 자 블라디보스토크발 기사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일본 경찰은 혁명 잡지를 인쇄한 비밀 인쇄 시설을 찾아냈다. 모든 인쇄 기계는 즉각 군법회의에 귀속되었다. 도쿄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무력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진압할 것으로 보인다. 2000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무자비하게 검거되었고, 그중 절반은 재판에 회부된다.”⁴⁰⁾

III. 독립군과 체코군단의 무기 거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전 기간의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 지역에는 소비에트 붉은 군대와 다양한 형태의 백군, 그리고 체코군단, 다양한 국적의 친 소비에트적인 국제혼성군과 반 소비에트적인 국제간섭군 등이 활동하고 있었고 서로 간의 필요에 따라 많은 무기가 거래되고 있었는데

39) *Czechoslovak Dennik*(제340호), 1919.3.28. <주간조선>(2094), 2010.3.1.에서 재 인용.

40) *Czechoslovak Dennik*(제377호), 1919.5.13. <주간조선>(2094), 2010.3.1.에서 재 인용.

1919년 이후 무장 독립투쟁론을 주장하던 간도의 한국독립군들의 경우 체코군단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였다.

한국독립군들과 체코군단 간의 무기 거래는 이범석의 <우등불>과 이우석의 증언 등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으나 체코 측의 사료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무기거래 사실을 당사자인 체코군단이 스스로 어떤 근거를 남길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1. 독립군과 한인들의 체코군단 무기 구입

대한 군정서의 무기 구입처는 주로 시베리아에서 철수하는 체코군단과 러시아 과격파들에게서였다.⁴¹⁾ 이범석은 <우등불>에서 북로군정서가 체코군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북로군정서의 근거지는 지린성 왕친셴 시따퍼의 큰 삼림 한복판에 있었다. 울창하고 끝없는 이 대 삼림은 연연 수천 리에 뻗힌 장백삼림의 한 끝으로 대자연이 이뤄놓은 하나의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원시림은 우리가 체코슬로바키아제 무기를 은밀, 대량으로 운반해 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러시아와 단독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체코슬로바키아는 오스트리아의 철쇄로부터 해방되어 미, 영, 불의 원조아래 자유 민주국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오스트리아에서 참전하였던 ‘체코슬로바키아’인 2개 군단은 동구전선으로부터 시베리아를 경유, 서부에 이르러 연합군과 손을 잡고 싸워서 개선 귀국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러시아를 가로

41) 신용하, 『의병과 독립군의 무장독립운동』, 지식산업사, 2003, 277쪽.

질러 우랄산맥을 넘어 블라디보스토크에 집결했다. 서쪽으로 떠나는 배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한국 독립운동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난 날 자신이 오스트리아 제국의 통치 아래 지내온 노예생활을 회상하며 우리에게 동정심을 보였다. 마침내 그들은 블라디보스토크의 무기고에 저장한 무기를 우리 북로군정서에 팔게 되었다. 이 매매는 깊은 밤 뻑뻑한 삼림 속에서 이루어졌다. 복수와 설욕에 쓰일 이 무기는 삼림 속으로 한 무더기 씩, 한 무더기씩 우리 손에 운반되어 왔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충분한 무기를 갖게 되었다. 작은 대포, 중기관총, 일제 및 러시아제 소총, 수류탄 등 등 ... 더욱이 적에게 피의 빛을 청산할 80만 발의 탄환까지 끼어서..."⁴²⁾

위에서 이범석은 자신들이 구매한 무기를 “체코슬로바키아제”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를 오해한 것으로 당시 체코군단은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출처의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다. “체코제 무기”에 대하여는 독립군 병사 이우석의 증언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역시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이 판 무기이기 때문에 체코제라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⁴³⁾ 제1차 대전 개전 초기부터 러시아에 있었던 체코군단이 1918년 10월에야 독립국이 되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만든 무기로 무장할 수는 없었다. 제1차 대전 당시 산업시설이 부족했던 러시아는 미국에 대량의 무기를 주문하였다. 1917년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47만여정이 납품되었고, 나머지 약 28만 정은 미군이 인수하여 그 일부를 러시아 혁명에 개입하는 연합군에게 주었는데 약 5만정이 체코군단에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일부가 독립군에게 넘어갔다면 이는 미국산 러시아 소

42) 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우동불』, 백산서당, 2016, 34~35쪽.

43) 박영석, 『한 독립군 병사의 항일 전투 - 북로군정서병사 이우석의 사례 -』, 박영사, 1984, 87쪽.

총이었다.⁴⁴⁾

체코군단이 귀국 길에 짐이 되는 무기를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더구나 체코군이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하며 우리의 처지에 동정하여 우리에게 무기를 넘겨주었다거나,⁴⁵⁾ 비록 과정은 은밀할 수밖에 없었겠으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무기를 우리에게 팔았다고 할 수는 없다. 체코군 당국자가 아닌 개인 혹은 집단들이 각기 돈을 벌기 위해 처리해야 할 무기를 불법적으로 빼내어 은밀히 팔았을 뿐이었다. 이는 뒤에 언급 할 Hess의 메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20년 당시 조선총독부는 한국인들과 체코군단 간의 무기 거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만주 시베리아 등지에서 활동한 밀정들의 보고에 의한 조선총독부 경무국 문서에는 몇 건의 구체적인 무기 거래 사실들이 적시되어 있다.

“박창호가 체코 군인으로부터 구입한 총 60정, 탄환 6천 발은 29일 조일이 휴대하고 조선인으로서 러시아 병적을 가진 5명의 호위를 받고 씨크오트 방면으로 운반한 형적이 있다.”⁴⁶⁾

또 1920년 7월에는 김영준이라는 사람도 체코군 장교로부터 다량의 무기를 구매하였다고 하고 있다.

“김영준은 7월 중순 체코 장교로부터 군총 300정, 탄약 수 만발, 폭탄 1천6

44) <중앙일보> 2018.11.30

45) 박영석, 『한 독립군 병사의 항일 전투 - 북로군정서병사 이우석의 사례 -, 87~88쪽.

4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0, 1976, 113쪽.

백 개를 구입하고 노령 땅 어느 섬으로부터 범선에 적재하여 수분하구(綏芬河口)로부터 이도구(二道溝)로 운반하고 한상렬의 손에 넘겨주었다. ...

본 건에 대하여 대금을 주고받는 문제로부터 체코 장교와 김과의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7월 22일 밤 체코 장교는 한 사람의 러시아인과 함께 김영준 집으로 내방한 사실이 있는데, 그 뒤 김씨 및 그의 일가족은 그들이 다시 오는 것을 꺼려 숙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도피하고 있었다.⁴⁷⁾

이어서 “신”이라는 이름의 한국인도 반복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며 조금씩 조금씩 수 만발의 수류탄을 구입하여 비밀리에 한국으로 보냈다고 하고 있다.

“불령선인 신(申)이라는 자는 항상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몰하여 주로 일번하(一番河) 모처소 빙실에 은닉 중인 체코군 총기 5만 정, 기관총, 수류탄 5천 개를 소량씩 매입하여 아무르 만으로부터 비밀로 배에서 적출하여 중국 마차로 일단 반도하자(반도하자) 역에 운반하고 축차로 조선 영내에 밀송하고 있다 (체코군의 매출하는 무기는 이 밖에 툴킨 반도 루스키 섬 어느 지점에 은닉해 있다).”⁴⁸⁾

위의 박창호나 김영준, 그리고 신이라고 지칭한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으나 아마 일반적인 무기 거래 중개인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군단과 독립군 간의 무기 거래 형태는 직접적인 거래보다는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친 복잡한 과정이었을 것이다.

4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0, 142쪽.

4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0, 145쪽.

2. 무기 거래에 대한 체코 측의 사료

체코군단과 한국 독립군과의 무기 거래 사실을 일찍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일본 군부는 이 문제를 체코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Harbin의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동시베리아 및 중국 담당관 Milos Hess가 러시아 주둔 체코슬로바키아군 사령관 General Syrovy에게 보낸 1920년 4월 7일 자의 메모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⁴⁹⁾

하르빈, 1920. 4. 7

No 7011

러시아 주둔 체코슬로바키아군 사령관 Syrovy 장군에게,

나는 오늘 하르빈에 있는 일본군 간부가 체코슬로바키아군인들이 한국인들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 번 씌이나 나에게 주지시켜주었다는 사실을 귀관에게 알려드립니다. Mulin 역에 있는 일본군 사령관은 우리의 군인들이 도중에 한국인들에게 한 정당 130 루블로 총을 팔고 있다고 일본군 부대에게 전문을 보냈다 합니다.

일주일 전에도 러시아 임시정부의 연해주 대표인 Mr. Pumpyanski가 같은 문제를 나에게 제기했는데, 그는 일본인들이 무기 거래에 대한 조사, 그리고 무기 거래 현장에서 체포한 우리 병사들의 문제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밀보고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는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한 일본군 대표와의 사적인 대화에서 그 보고서는 일본과 체코 군부 간에 유지되고 있는 우호적인 관계를 파괴하

49) Z. Klöslova, "Czech Arms for Korean Independence Fighters" in *Archiv orientální*, Praha, 2003, p. 63

려는 의도로 우리의 적들이 퍼뜨린 도발적인 루머라고 단호하게 언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는 중국 당국자와 러시아 총영사도 우리의 병사들이 주로 리벌버 권총, 수류탄 등을 중국인과 러시아 노동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알려 주었는데 이는 유선전화로 내가 귀하에게 전해 준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역 정보당국도 조사를 통해 확인해 준 사실이므로 나는 귀하가 그것을 지적해 줄 것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육군 중령 Milos Hess

위 문서를 보면 독립군과 체코군단 간의 무기 거래는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수행된 것이 아니라 일탈적인 일부 병사들에 의하여 은밀히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무기를 구입한 측도 독립군뿐만 아니라 중국인 러시아인도 있었다.

이보다 앞서 *Czechoslovak Dennik*도 독립군의 무기구입에 대한 일본 측의 심각한 우려와 경고에 관하여 보도하고 있다. 즉 1920년 3월 7일자 기사에 의하면, 이나하키 장군이 러시아 당국자에게 일본의 지배 하에 있는 한국인들이 러시아 지역에서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 무기와 군수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경고한 동년 1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기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일 러시아 당국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일본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는 것이다.⁵⁰⁾

50) Z. Klöslova, "Czech Arms for Korean Independence Fighters", p. 59.

IV. 맺는말

1948년 공산화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체코 군단이 1918년 체코 건국에 별다른 기여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정의롭지 못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즉 그들은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 전쟁에 참전했고, 특히 신생 소비에트 정부의 목을 조인 반동적인 존재였다는 것이었다.⁵¹⁾ 이러한 상황에서 체코군단에 대한 언급이나 연구는 1989년까지는 거의 금기시 되었다. 1989년 이후 새로운 시각으로 군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자료의 접근, 수집 정리의 어려움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으로 국내의 체코군단이나 군단과 독립군과의 관계 등에 관한 연구 역시 단편적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체코군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지금까지의 독립군과 무기 거래라는 일회적, 제한적인 문제 영역을 벗어나 1920년대를 전 후한 동북아의 정세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체코군단의 시베리아 철도를 통한 이동은 고대 그리스의 *Anabasis*에 비교되는 역사적 사건의 한 특이한 형태로서 그 자체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흥미 있는 연구 주제이다. 체코군단과 관련된 국내외의 다양한 사료들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할 경우 1920년을 전 후한 연해주와 만주, 그리고 간도 지역의 독립운동사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사료 된다. 특히 가이다의 열차 등 체코군단에 합류하고 있던 한인들의 존재와 독립군과의 관계를 추적해 보는 작업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과

51) K. Pichlick, B. Klipa, J. Zabloudilova, *Czechoslovak Legionaries(1914-1920)* Praha, 1996. Z. Klöslova, "Czechoslovak Legion". p. 196 재인용.

관련하여 체코군단이 이동 중에 발간했던 *Czechoslovak Dennik*는 중앙 아시아와 연해주 등지에서 활동했던 무명의 다양한 한인들의 행적을 밝혀 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미 밝혔듯이 독립군들이 총포와 탄약, 그리고 수류탄 등 체코군단으로부터 구입한 무기는 체코제가 아닌 다양한 출처의 “체코군단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였다. 또한 군단이 독립군에게 무기를 판매한 것도 그들이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고 독립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해서가 아닌 단순한 무기 처분 과정이었다. 체코군단의 무기를 구입한 사람들은 독립군 외에도 중국인과 러시아인 등 다양한 민족과 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기 판매 행위도 군단의 공식적인 승인 하에서가 아닌 군단의 암묵적 방조 혹은 소수 군단병들의 일탈된 행위였다.

가이다 장군의 여운형 등에 대한 환대와 한국독립에 대한 지지 표명, 그리고 귀국 후에도 필설로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겠다고 했던 약속 등의 진정성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부관 한츠를 대동시킨 열차로 귀로의 여운형을 호위해 주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지만 밝혀진 바 귀국 후의 가이다의 행적에서 우리가 크게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의 진정성을 믿기는 어렵다. 추측건대 독립군으로 넘어간 무기 중 일부는 가이다가 지휘하던 부대의 무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시정부의 가이다 장군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파리 평화 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해줄 나라는 없었다. 모두가 한국인의 적인 일본의 우군들이었다. 그런데 유럽의 신생 체코 공화국의 유력자로 보이는 가이다가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을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임정 요원들에게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임시정부가 체코 독립기념 은컵을 제작하여 가이다에게 선물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였다. 체코슬로바키아나 가이다에 대한 박은식 선생의 기대와

평가도 그야 말로 선생의 기대와 희망이었을 뿐이다.

(2019.10.31. 투고 / 2019.12.09. 심사완료 / 2019.12.09. 게재확정)

[Abstract]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Czechoslovak Legion

Hwang, Jeong-sik

In Czechoslovakia since communization in 1948, there has been a widespread perception that the Czechoslovak Legion had not made any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founding of the Czechoslovak Republic in 1918, nor that its existence itself was just. In other words, they were the frontiers of imperialism and was the reactionary beings who struggled against the fledgling Soviet governm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references to or studies of the Czechoslovak Legion were almost taboo until 1989.

Although military research has been under way in a new light since 1989, research on this field has not yet received much attention due to difficulties in accessing and compiling data. Against this backdrop,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zechoslovak Legion and the Independent Army in Korea has also remained fragmentary.

A systematic study of the Czechoslovak Legion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in 1920s. Furthermore, the movement of the Czechoslovak Legion through the Siberian Railway is an unusual form of historical events compared to *Anabasis* in ancient Greece, and itself an interesting study subject that attracts our attention. The excavation and systematic analysis of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materials related to the Czechoslovak Legion

is to suggest a lot to the study of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in the regions of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Manchuria and Gando in the year 1920s. In particular, it will be very meaningful to track down the existence of Koreans who were joining the Czechoslovak Legion, including the train in Gajda,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Independence Army. Related to these issues, *Czechoslovak Dennik*, published by the Czechoslovak Legion on the move, is to be a valuable source that can reveal the tracks of various unknown Koreans in Central Asia and the Maritime Provinces of Siberia.

The weapons purchased from the Czechoslovak Legion, including guns, ammunition and grenades, were not from the made in Czechoslovakia but from “possessed weapons of the Czechoslovak Legion” from the various country. Also, the Legion’s arms sales to the independent forces were not simply a process of disposing of weapons, not because they thought they would support and help Korea’s independence. The people who purchased the Czechoslovak Legion’s weapons were from a variety of ethnic and class groups, including Chinese and Russians. And arms sales were also an aberration of a small group of soldiers, not under the official approval of the Legion.

To what extent should we believe in the sincerity of General Gajda’s hospitality toward Yeon Un-hyung, his expression of support for Korea’s independence, and his promise to publicize the legitimacy of Korea’s independence even after returning to Korea? It is highly unusual that a train accompanied by a deputy Hanc was used to escort him home, but it is hard to believe his sincerity, as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re is nothing much we should pay attention to in Gajda’s

s tracks after returning home. But we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some of the weapons that were transferred to the independent forces were those of the troops that were commanded by Gajda.

Because there was no country to understand and represent Korea'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Provisional Government's expectations for General Gajda are likely very high. In the Paris Peace Conference, all of the countries were allies of Japan, the enemy of Koreans. But it must have been very encouraging for Provisional Government that Gajda, seen as the leading figure in Europe's fledgling Czechoslovak Republic, understood and expressed sympathy for them. It was in that context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made silver cup for the establishment of Czechoslovak Republic and presented it to Gajda. But Park Eun-sik's expectations and evaluation of Czechoslovakia and Gajda were nothing but his expectations and hopes.

□ Keyword

Czechoslovak Legion, *Czechoslovak Dennik*, Siberian Railway, silver vase, soviet, Red Army, White Army, international division, interventionists, Paris peace conference, partisan

[참고문헌]

- 강덕상 저, 김광열 역, 『여운형 평전』 1, 역사비평사, 2007.
 _____, 『여운형과 상해임시정부』, 선인, 2017.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0, 1976.
- 박영석, 『한 독립군병사의 항일전투 - 북로군정서병사 이우석이 사례 -』,
 박영사, 1984.
- 박은식 · 남만성 역, 『한국독립운동지혈사』 (하), 서문당, 1999.
- 신용하, 『한국근대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88.
 _____, 『의병과 독립군의 무장독립운동』, 지식산업사, 2003.
- 이기형, 『여운형평전』, 실천문화사, 2004.
- 이만규, 『여운형선생투쟁사』, 민주문화사, 1947.
- 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우등불』, 백산서당, 2016.
-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편, 『러시아 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 교문사.
 1994.
- Babicev, I., *Participations of Chinese and Korean Workers in the Civil War In the Far East*, Takent 1959.
- Gozenskij, I., *Participation of Korean Emigration in the Revolutionary Movement In the Far East*, Moskova, 1923.
- Inst. of Military History, *A Guide to the Funds of the Archives of Military History*, 2nd Vol. Praha, 1985.
- Kim M. T., *Korean Internationalists Fighting for the Soviet Reign in the Far East(1918-1922)*, Moskova, 1979.
- Kim Syn Hwa, *An Outline of the History of Soviet Koreans*, Alma-Ata, 1965.

Klösslova, Zdenka,

“A Story of (not only) a Silver Vase”, *Dejiny a somcasnost* 16/6, 1997.

“Czech Arms for Korean Independence Fightings” in *Archiv orientalni, Quarterly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Vol.71, No.1, 2003.

“Koreans and Czech Arms”, in *Novy Orient* 55/8, 2000

“The Czechoslovak Legion in Russia and Korean Independences Movement(A Contribution to the Earliest Czech-Korean Contacts)” in *Archiv orientalni*, 2002, pp. 195-220.

“Two Czechs in Korean History : Radola Gajda and Josef Hanc”, in *Novy Orient* 55/6, 2000.

Krizek, I., *The Germans, Lenin and the Cz. Legions*, Praha, 1997

Masaryk, Tomas , *The World Revolution*, Praha, 1925.

Olsa, Jaroslav, Jr., “Jiri Viktor Danes : Czechoslovak Geographer and Diplomat in Colonized Korea”,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Transaction*, Vol.85, 2010.

Pichlik, K. Klipa, B. Zabloudilova, J., *Czechoslovak Legionaries(1914-1920)*, Praha, 1996.

Sabina, F. I., *A survey of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Moskova, 1959

Sak, R., *The Anabasis, Drama of Czechoslovak Legionaries(1914-1920)*, Praha, 1996.

Sak, V. F., J. Spirhanzl-Duris and Others, “Korean Fairy Tales in Czech” in *Novy Orient* 55/9, 2000.

Vacha, Dalibor, “Tepluskas and Eshelons, Czechoslovak Legionar-

ies on their Journey across Russia”, *Czech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1, 2013.

Valiakhmetov, Albert N., “Perception of Czechoslovak Corps by Warring Parties in Volga Region in 1918”, in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Vol.8, No.7(2015)

Zupcan, Gabriel, “Der Tschechoslowakische Legion in Russland 1914-1920”, Diplomarbeit in Wien Universität, 2008.

